

한형조 무문관 탐방

39

풍혈의 자고새

*풍혈화상에게 어느 승이 붙었다. "말이나 침묵이 진리(眞微)를 건널 때 어떻게 해야 (진리)를 다치지 않을 수 있느냐." 풍혈이 말했다. "늘 강남의 삼월을 기억한다네. 자고새 우는 곳에 흠여지는 온갖 꽃의 향기를."

*나 해개가 말한다. "풍혈의 숨씨는 번개를 끄는 듯. 길을 확인하면 곧바로 나아간다. 그런데 어쩌서 앞 사람의 허를 잡아 끊어버리지 않았을까. 여기서 절실한 깨달음이 있다면 (생사로부터) 몸을 뺄 길이 저절로 열리리니. 자, 언어삼매를 떠나 어디 한 구절을 말해 보라."

*송하여 가로되, "풍혈(風霄)의 한 구절을 드러내지 않고도, 말 이전에 이미 부락은 전하였다. 만일 나서서 말로 주절거렸다면, 그 너도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겠지."

離却語言:
風穴和僧因僧問, 語默涉離微, 如何通不犯. 穴云, 長憶江南三月裏, 啼處百花香. 無門曰, 風穴機如電, 得路便行, 爭奈坐前人舌頭不斷. 若向者裏見得親切, 自有出身之路. 且離却語言三昧, 道將一句來. 頌曰, 不露風霄句, 未語先分付. 進歩口, 知君大闢措.

풍혈(風穴 896~973)은 그 엄하다는 입제(臨濟?~867)의 4세 법손이다. 때는 송대 초입, 당대(唐代) 선장들의 개성적 백



그림 : 이준석

"늘 강남의 삼월을 기억 한다네"

풍혈의 선풍 송대의 문학적 기교 보여

화난만이 점차 선속과 정리로 길을 내주고 있던 시절이었다. 풍혈은 처음 선비로 과거시험을 치른 적이 있다. 낙방한 후 불교에 매력을 느껴 출가한다. 천태와 화엄을 섭렵하다가 남원(南院)을 만나게 된다.

남원이 물었다. "남쪽의 동몽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쪽의 풍혈이란 남원이 파지하고 있는 진리를 가리킨 것이다. 풍혈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표한 다음 이번에는 풍혈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그 동몽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역습에 남원은 들고 있던 주장자를 거두며, "동몽이 아래의 무생인(無生忍)은 절대로 스승에게 양도하지 않는다"고 정색을 했다. 나고 죽음이 없는 진리의 당체는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엇이라는 남원의 견고한 확신에 풍혈의 고개가 깊이 숙여졌다. 그 인연으로 풍혈은 남원 밑에서 배움을 의탁한다. 6년이 지나 성태(聖胎)가 무르익자 하남의 여주(汝州)에 있는 풍혈사에 주석하며 입제의 종풍을 드날린다.

공안은 그 시절 어느 승과 나는 문답을 적고 있다. 첫 구절은 조금 까다롭다. '진리'라고 번역한 이미(離微)는 승조(僧肇)의 <보장론(寶藏論)>에 나오는 용어이다. 승조는 중국에 불교가 활발히 전래되던 4세기말의 인물이다.

해 풍혈은 엉뚱한 시투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다. "늘 강남의 삼월을 기억한다네. 자고새 우는 곳에 흠여지는 온갖 꽃의 향기를." 이 시는 원래 두보의 것이라고 전한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전쟁의 고통이라는 배경 너머에서 보면 참으로 운치있는 서정시다. 여기서 '늘'이라는 부사를 눈여겨 보기 바란다. 진리는 언제나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빗대고 있다. 물론 풍혈은 이 시를 메타포로 인용했다. 진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바라보았듯이 직유가 아닌 은유, 실득이 아닌 암시로 전해지는 그야말로 "흔적도 자취도 없는 이미(離微)"라는 것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해개는 그러나 이런 은유와 암시도 못마땅해 한다. 풍혈의 번개같은 숨씨(?)에 감탄하면서 대처가 딱 흠족하지 않았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그렇지는도 모른다. 중조할아버지 임제였다면, 승조를 들먹이면서 자못 문자속을 자랑하는 질문자의 헛바탕을 가차없이 잘라버려 세상의 평온을 도모했을 것이다.

해개의 아쉬움 섞인 비난은 풍혈 이후의 선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풍혈을 이어 분양선소(汾陽善昭)에 이르면서 선은 송대의 문학적 기교 탓인지 현저하게 문학적 기교와 분석의 경향을 띠어갔기 때문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중생제도와 구제의 대서원

한방건강 미삼정(彌參錠)

보건사회부 허가 제 130 호
창원시 허가 제 48 호

본 미삼정은 (彌參錠)은 무명대사(無名大師: 1812~1830)께서 중생의 제도과 구제의 대서원으로 오도하여 성분제 조상의 영험한 비법을 후대에 전수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미삼정은 모든 병의 근원인 기(氣)의 흐름을 원활히하여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할뿐만 아니라 체내의 항체,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병이 가져온 인체의 각종 부작용과 허약화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보강하여 장기복용하면 수복강령(壽福康寧)을 누릴 수 있는 신비의 건강식품입니다.

특징

- 오장육부의 기능조절 및 강화
- 혈액순환 내분비기능 활성화
- 시력, 청력, 사고력 촉진
- 신경계통 장애 개선 및 두뇌기능 완화
- 피로 해악제거, 강장·강장 효과
- 병후 회복기 단축
- 노화방지
- 질병 감염에 대한 저항력 강화
- 심신의 조화와 안정
- 세포 신진대사 촉진

● 전국(시,군) 대리점 모집 ●
부처님의 원력으로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신 스님 및 불자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명성사 주지 합장

경남 창원시 북면 하천리 748-1
■ 연락처 : 055198-5911
■ 서울사무소 : 02)537-9110, 586-0718

사왕티성에 마음씨도 약하고 용모도 잘생기지 못한 박칼리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나이 스무살때 성내에서 밥을 비치는 부처님을 뵈고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기품에 넘치는 부처님의 상호(相好) 때문이었다.

부처님의 얼굴과 몸매의 모습을 상화라고 하는데 그 상호는 일반 범부 중생들의 모습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서른 두가지의 거룩함과(三十二吉祥) 여든 가지 훌륭한 모습(八十種好)을 가리킨다.

발달부터 정수리까지의 길모습은 물론 음성과 성품까지도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공경심이 일고 환희심이 생기는 이러한 상호는 세상을 완전한 덕으로 통치하는 전륜성왕이나 전가의 중생을 제도하시는 대승부처님만이 지닐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

발바닥이 편편하다든가 손바닥에 수레바퀴와 같은 무늬가 있다든가 팔의 길이가 무릎까지 내려온다든가 미간에 흰털이 말려 있다든가 정수리에 살상투가 있다든가 하는 등(그러나 이상하게도 코에 대한 언급은 경전에 나와 있지 않다).

박칼리는 자기 자신의 용모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이와같은 모습을 뵈자 '저렇게 성스러운 분을 내가 곁에서 바라 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침내 가정을 떠나 비구가 되었다. 그런데 비구가 된 박칼리는 비구로서 배워야 할 좌선이라든가 경전을 독송하는 일은 하지않고

자왓터성에 마음씨도 약하고 용모도 잘생기지 못한 박칼리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나이 스무살때 성내에서 밥을 비치는 부처님을 뵈고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기품에 넘치는 부처님의 상호(相好) 때문이었다.

부처님의 얼굴과 몸매의 모습을 상화라고 하는데 그 상호는 일반 범부 중생들의 모습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서른 두가지의 거룩함과(三十二吉祥) 여든 가지 훌륭한 모습(八十種好)을 가리킨다.

발달부터 정수리까지의 길모습은 물론 음성과 성품까지도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공경심이 일고 환희심이 생기는 이러한 상호는 세상을 완전한 덕으로 통치하는 전륜성왕이나 전가의 중생을 제도하시는 대승부처님만이 지닐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

발바닥이 편편하다든가 손바닥에 수레바퀴와 같은 무늬가 있다든가 팔의 길이가 무릎까지 내려온다든가 미간에 흰털이 말려 있다든가 정수리에 살상투가 있다든가 하는 등(그러나 이상하게도 코에 대한 언급은 경전에 나와 있지 않다).

박칼리는 자기 자신의 용모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이와같은 모습을 뵈자 '저렇게 성스러운 분을 내가 곁에서 바라 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침내 가정을 떠나 비구가 되었다. 그런데 비구가 된 박칼리는 비구로서 배워야 할 좌선이라든가 경전을 독송하는 일은 하지않고

法數로 배우는 불교

<49>

32길상 80종호

거의 모든 시간을 부처님 우러러 보는일에 다 보내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에게 깨우쳐 주기 적당한 인연이 도래하기를 기다리시며 발다른 경책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이제는 박칼리 비구의 지나친 행위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할때가 되었다고 여기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자이다. 그리하면 평화로운 피안에 이를지니, 그때 존재는 적멸하여 최상의 행복을 이루리다." 이와같은 계승에 박칼리는 기쁨이 충만해 몸이 허공처럼 자유로워지면서 큰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불자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흠모하고 존경한다. 살아가신 부처님은 아닐지라도 32길상 80종호의 모습대로 조성된 불상앞에 신심을 바치고 공양을 올리면서 공덕을 기원하고 있다. 32길상과 80종호는 가장 완벽한 육체와 정신을 갖춘 최상의 인격체이다.

그 모습은 비단 석가모니와 같은 부처님만의 것이 아닌 우리 중생들이 온갖 선행과 공덕을 닦아 이루어야 할 미래의 자기 모습이다. 불교는 형상에 대한 집착을 여의는 가르침이다. 그것이 아무리 성스러운 부처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모습 자체에만 집착해 버리면 또 하나의 병을 낳는다.

진정한 여래는 32길상 80종호에 있지않고 법을 체득한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래를 32길상에서 보려하면 그것은 이미 샅된 도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기 그지 없는 32길상 80종호도 대상으로만 여기고 숭배한다면 부처님의 뜻에 어긋난다.

불상의 모습을 통하여 모습 아닌 무형의 부처님을 친견해 보자.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의 진정한 상호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보자.

이제 열 <유마선원장>

불교와 수학

42

아라한과 무한

김용운

동양 사상에서는 9(九)라는 수를 좋아한다. 10(十)은 완성과 성정의 상징을 삼았을 때 9는 10에 하나가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마지막의 노력을 다하는 힘이 남아 있는 것으로 여겨 귀하게 생각한다.

"날이 차면 기우나니"라는 속담도 있다. 속담은 속세에 있어서의 처세 훈이며 어디까지나 유한 세계의 지혜, 행복감을 말한다. 그러나 무한의 극점에서 완성된 수로 생각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1, 2, 3, 계속 수를 늘려가면 끝이 없다. 그러면서도 이들 수는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모두 유한하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유한 세계를 뛰어 넘을 때가 있다. 근세 수학은 1, 2, 3,을 훌쩍 뛰어 넘어 무한을 받아들이는 의지적인 순수 사유의 요청을 받아 들었다.

무한수 ∞는 무한으로 뻗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그 극점의 수로서 설정한다. 1, 2, 3,과 ∞ 사이에는 이승과 저승만큼이나 엄청난 틈이 있으며, 아무리 계속 같은 방법으로

부처님이 갖춘 최상 모습 "법을 보는자 아래를 본다"

"박칼리여, 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여래의 이 몸도 네 몸과 같이 온갖 부패물과 가득 찬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네가 이 몸을 일심으로 바라 본들 무슨 큰 이익이 있겠느냐? 박칼리여, 법을 보는 자가 진실로 여래를 보느니라" 부처님의 이같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박칼리는 부처님의 형상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 박칼리 비구가 큰 충격을 받지 않으면 당시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없으리라 생각하시고 일부러 방편을

이 되어 영축산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으리라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산으로 올라갔다. 이때 부처님은 박칼리의 이러한 마음과 행위를 아시고 곧 그에게 광명을 보이시고 마치 그의 앞에 서 계시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러자 박칼리는 절망적인 생각에서 홀연히 벗어나 한없는 기쁨이 솟았다. 그런 박칼리에게 부처님께서는 다음 계승을 읊으셨다.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그대여, 여래의 가르침에 완전한 믿음을 지닐

이 되어 영축산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으리라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산으로 올라갔다. 이때 부처님은 박칼리의 이러한 마음과 행위를 아시고 곧 그에게 광명을 보이시고 마치 그의 앞에 서 계시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러자 박칼리는 절망적인 생각에서 홀연히 벗어나 한없는 기쁨이 솟았다. 그런 박칼리에게 부처님께서는 다음 계승을 읊으셨다.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그대여, 여래의 가르침에 완전한 믿음을 지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수를 셈해도 ∞에는 당도할 수 없다.

이 수를 설정하는 일은 수행을 다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대오(大悟)의 경지와 비유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오를 얻은 진인(眞人)일지라도 속세 인간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다. 오히려 중생제도의 사명을 갖고 다시 속세의 세계에 들어온다. 노파심절(老嫗心切) 늙은 할머니가 어린 아이를

흥탕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물에 몸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花泥淨水). 대오를 얻은 진인이 얼굴에 더러운 흙과 먼지를 뒤집어 썼거나 중생을 구하기 위해 흥탕물에 빠졌을 때는 다시 법인과 같은 경지가 되는 것인가?

이 상황은 '연꽃이 흥탕물에서 피어도 아무런 더러움을 타지 않는다'와 같다. 연잎 위에 튀긴 물방울은 그대로 굴러서 떨어진다든가 비유이다. 수학에서는 1, 2, 3,에서 한 단계 비약하고 무한수 ∞에 당도한 후 일을 생각한다. 다른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를 생각한다.

∞+1, ∞+2, ∞+10,000,
또는 ∞-1, ∞-2, ∞-10,000,.....

더 나아가서는 ∞+(1, 2,)=∞+∞와 같은 상황이다.

이때 여연화불착수(如蓮花不着水), 연꽃에 물이 묻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 그대로 ∞이며 심지어 ∞라는 식으로 몇 번 더해도 ∞이다. 물론 더했을 때뿐만 아니라 뺐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아라한의 입장은 ∞에 겨우 당도하는 것과 같으며 고정화된 무한이나 다름없는

행국이 된다. 만일 그대로 고정된다면 무한도 유한과 다름없이 융통성이 없는 만수(滿數)와 다를 없다.

속의 세계에서는 그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경지가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가능한 만능의 상태로 비유된다. 이때 남은 일은 그런 형편에서 떨어지는 일이며 그것이 걱정이다.

10-1=9는 10과 다르기에 다시 9의 처지가 되는 일을 걱정한다. 이때는 내려왔을 때만큼 10으로 오를 때의 9와는 달리 불안이 따른다. 무한은 아무리 유한의 수를 더하거나 빼도 변함이 없음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방편을 중시한다. 때로는 그때그때 중생이 놓인 처지에 따라 속된 말로 그 놓인 처지를 설명하고 구제의 손을 뻗는다.

그 방편의 내용은 무한의 경지에서 유한의 상황(속의 세계)을 설명하는 것과도 같다. 무한에 어떤 수를 더해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대오의 경지에서는 속의 말로 된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무한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서 그 경지에 있었다고 착각하는 일은 유한 세계에 있으면서 다른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과도 같은 어리석음이 된 것이다. 그런 처지에서는 방편도 유한 거짓이 되며 할부로 쓸 수 없는 위안을 안는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7 각 방편들의 내용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0 특별 천도제를 지낸 일어난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4-9491
야간 : (0342) 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총명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 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 처리

규격 : 45cm x 45cm

◎ 보급가 :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4-9491
야간 : (0342) 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수 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성이거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면,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면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액(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저에서는 방마다 걸어놓았던 동관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의 수액 차단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